



2014년 6월 13일 제 33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동향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 최근 동향

[경제] 미 연방정부 적자 감소세 지속: 2014 회계연도 8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30.3% 감소 (6,263억불→4,364억불)

[노동] 미국 5월 노동지표 : '14년 5월중 실업률 6.3% 유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65,000개 감소 (217,000개)

[자동차] '14.5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약 160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 전월 대비해서도 15.7% 증가 / 현대.기아차는 전년대비 8.5% 증가, 크라이슬러, 닛산, 도요타가 각 16-19%로 큰 증가율 기록

[ICT] 미 연방정부의 ICT 진흥책 추진 현황: 5년내 4G 서비스 98% 확충 및 전국에 디지털 러닝 보급,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2억불 이상 투자, 대통령 혁신자문단 운영, 사이버 물리시스템 주요분야간 상호연결을 통한 활용도 제고 등

[통계] 미국의 일일 경제지표

# 최근 미국 경제 동향

## 1 미국정부, 2014회계연도 5월 결산 결과 발표(6.11)

- 미 재무부는 미 연방정부의 2014 회계연도(13.10.1~14.9.30) 여덟번째 달인 2014년 5월 결산 결과 1,30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전년 동월대비 세수는 1.4% 증가(27억달러)하고, 세출은 1.8%가 감소(61억달러)하여 2013.5월(1,387억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규모가 6.3%(88억달러) 감소
  - 2014 회계연도 8개월간의 적자규모는 4,364억달러로 2013회계연도 동기간 적자 6,263억달러에 비해 30.3%(1,897억달러) 적자가 감소

(단위 : 억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1.10-12.9)	(12.10-13.9)	2013.5월	(13.10-14.5)	2014.5월
재정수입	24,491	27,740	1,972	19,349	1,999
재정지출	35,383	34,542	3,359	23,713	3,299
재정수지 (GDP 비율)	- 10,892 (- 6.8%)	- 6,802 (- 4.1%)	- 1,388	- 4,364	- 1,300

## 2 주요 경제동향

- 2014년 5월 미국 생산자물가는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는 2.0% 상승

구 분	2014.1월	2월	3월	4월	5월
생산자물가	1.2%	0.9%	1.4%	2.1%	2.0%

\*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 2014년 6월 첫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4천명이 증가한 31.7만명을 기록

구 분	1년전	5.17	5.24	5.31	6.7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3.7만	32.7만	30.4만	31.3만	31.7만

※ 내용 관련 문의 : 유재훈 재경관보 (202-939-5649, dustinryu@gmail.com)

# 미국의 2014년 5월 노동시장 Monthly Report

## 1 주요 내용

- 미 노동부는 2014년 5월중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6.3%를 기록했다고 발표(14.6.6)
  - 2014년 5월 실업자 수는 9.79백만 명으로 전월에 비해 46천명 증가
    -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는 남성근로자(5.9% → 5.9%), 여성근로자(5.7% → 5.7%)와 십대근로자(19.1% → 19.2%)를 기록
    - 인종별로도 백인(5.3%→5.4%), 흑인(11.6%→11.5%), 아시아계(5.7%→5.3%) 및 히스패닉(7.3%→7.7%)
  - 경제활동참여율은 전월과 같은 62.8%를 기록하였고, 고용률도 전월과 같은 58.9% 기록 (전년동기(63.4%) 대비 0.6% 낮은 수준)
  - 장기실업자(27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수는 3.37백만 명,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근로자는 7.26백만 명

<2014년 5월 고용동향 추이>

(단위: 천 명)

구 분	2013.5월	2014.3월	2014.4월	2014.5월	전월대비 증감
경제 활동인구	155,609	156,227	155,421	155,613	192
경제활동참가율	63.4	63.2	63.8	62.8	0.0
고용률	58.7	58.9	58.9	58.9	0.0
실업률	7.5	6.7	6.3	6.3	0.0
장기실업자	4,353	3,739	3,452	3,374	-78
경제적 파트타이머	7,917	7,411	7,465	7,269	-196

- 2014년 5월 중 일자리는 총 217천개 창출되었는데 동 수치는 전월보다 65천개 줄어든 것임. (지난 12개월간 일자리는 매월 평균 197천개 증가)
  - 주로 기업지원서비스(55천개), 의료 및 사회서비스(54.9천개), 음식료서비스(33천개), 운송업(16천개) 등에서 창출
  - 1주 근로시간은 전월과 같은 34.5시간이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5센트 오른 \$24.38 (지난 12개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2.1% 증가)

<2014년 5월 일자리 증가 추이(비농업분야, Non-farm)>

(단위 : 천, 시간)

구 분	2013.5월	2014.3월	2014.4월	2014.5월
전체 일자리 증가	199	203	282	217
민간부문	222	200	270	216
상품생산 (광업,건설업,제조업)	2	21	46	18
서비스업	220	179	224	198
정부부문	-23	3	12	1
근로시간(1주 평균)	34.5	34.5	34.5	34.5
임금(1주 평균)	\$23.89	\$24.32	\$24.33	\$24.38

## 2 시장의 평가

-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치가 발표된 것으로 평가
  - 실업률은 전월과 같이 낮은 수준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이번 5월 동향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만에 하락한 노동시장의 수치들이 거의 회복된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
- \* 다음 달 고용동향 발표는 2014. 7. 3일(금) 예정

※ 내용 관련 문의 : 이원두 노동관 (202-939-5664, 212mkmr@gmail.com)

# 2014년 5월 미국 자동차 판매 동향

- '14.5월 미국 자동차 판매는 1,609,678대로 전년 동월(1,445,830대) 대비 11.3% 증가, 전월(1,391,303대) 대비 15.7% 증가 (Automotive news)
  - \*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 ('13.12)0.3→('14.1)△3.1→(2)0.0→(3)5.7→(4)8.1→(5)11.3
- 전월대비 영업일수 증가, 내방객수 최대치 기록, 메모리얼 데이 전후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판매 증가세(현대·기아 포함)
- 현대·기아차의 전월/전년대비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타 업체들의 상대적 판매신장 우위로 인해 판매점유 순위는 7위로 한 단계 하락

## 1 전체 판매동향

- (판매량) 5월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1.3% 증가한 160.9만 대, '14년 1~5월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674.3만 대 (자동차산업연구소)
  - \* (수요 측면) 지난 달 크게 증가했던 소비심리가 5월들어 3.2P 감소한 81.9P를 기록했으나, 영업일수 증가, 주요 딜러점 내방객수 최대치 기록 등 연초 부진에 따른 대기수요 해소
  - \* (공급 측면) 메모리얼 데이 전후 주요업체의 인센티브 확대 및 광고 등 판촉활동 강화
- 연간환산판매대수(SAAR)는 1,679만대로, 이는 2006년 6월 이후 최고치 (3월 이후 3개월 연속 1,600만 대 상회)
  - \* (SAAR, 만대) : ('13.12)1,537→('14.1)1,523→(2)1,534→(3)1,642→(4)1,607→(5)1,679
- (점유율) 전월 6위였던 현대·기아차는 닛산에 밀려 7위로 한 단계 하락
  - 현대·기아차는 한달만에 7위로 판매점유율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점유율은 8.1% (전월대비 0.5%p 하락, 전년대비 0.2%p 하락)
  - 크라이슬러는 50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GM은 계속된 리콜 ('14년 1/4분기 기준 700만대 이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릿판매 증가(21% ↑)로 인한 판매신장세 지속

점유순위	GM	포드	도요타	크라이슬러	혼다	닛산	현대·기아	폭스바겐	BMW	Diamler AG
'14.4월	1	2	3	4	5	7	6	8	9	10
'14.5월 점유율	1 (17.7 )	2 (15.7 )	3 (15.1 )	4 (12.1)	5 (9.5)	6 (8.4)	7 (8.1)	8 (3.3)	9 (2.2)	10 (1.8)
순위변동	-	-	-	-	-	↑(+1)	↓(-1)	-	-	-

□ (차급별 판매구성) 소형 상용 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 판매에서의 비중은 53.5%(전월대비 0.5%p↓)로 다소 감소

○ (소형상용) 픽업판매 증가세는 둔화(3.0%↑)되었으나 SUV 차종들의 판매증가세가 확대\*(17.6%↑)되면서 호조세 유지(전년비 13.4%↑)

\* 소형 SUV(22.0%↑) 강세 지속과 함께 중형 SUV(9.6%↑) 및 고급 SUV (21.3%↑)의 증가세 또한 확대

○ (승용) 4월 이후 판매 증가세(점유율 46.9%, 전월비 0.9%↑)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형·고급형 등 전 분야에서 판매 신장

\* 소형 : 전년 동월비 11.6%↑증가 / 일본업체의 빅3모델인 코롤라(30.8%↑), 시빅(19.2%↑), 센트라(75.4%↑)의 신차효과 및 인센티브 확대 영향

\* 중형 : 전년 동월비 6.1%↑증가 / 캐리는 3개월 연속 증가(26.4%↑)하였으며, 어코드(19.3%↑), 알티마(12.9%↑), 퓨전(14.6%↑)등 상위모델 위주로 증가

\* 고급 승용 : 전년 동월비 11.8%↑증가

< 월별 판매량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 전미딜러협회 >



## 2 업체별 판매현황

① (미국) 픽업 등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크라이슬러는 5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16.7%↑), GM(12.6%↑), 포드(3.0%↑)도 증가세

○ 크라이슬러 : 빅3중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램픽업(38,131대, 전년비 17.2%↑)과 지프(70,203대, 전년비 58%↑)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

\* 지프는 그랜드 체로키(18,068대, 전년비 13%↑)와 체로키(15,992대)의 호조에 힘입어 최초로 월간판매 7만대 달성

○ GM : 리콜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월에 이어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며, 특히 플릿 판매에서 호조(21%↑)

\* 트럭 판매가 크게 성장(45,039대, 전년비 8%↑)

- **포드** : 다른 2개사에 비해 성장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약세(3.0% ↑).
  - \* 주력인 F시리즈 픽업의 가격관측 약화(전년비 실거래가격 780달러 증가)와 경쟁모델 공세에 따른 부진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4개월 연속으로 월간 누적 증가율 감소(월간누적 증가율: △6.7% → △2.8% → △2.2% → △1.0%)
  - \* 다만, 주력 모델들인 퓨전(33,881대, 전년비 15% ↑), 이스케이프(31,896대, 전년비 10% ↑)의 판매량 증가로 전체 판매는 소폭 증가(3.0% ↑)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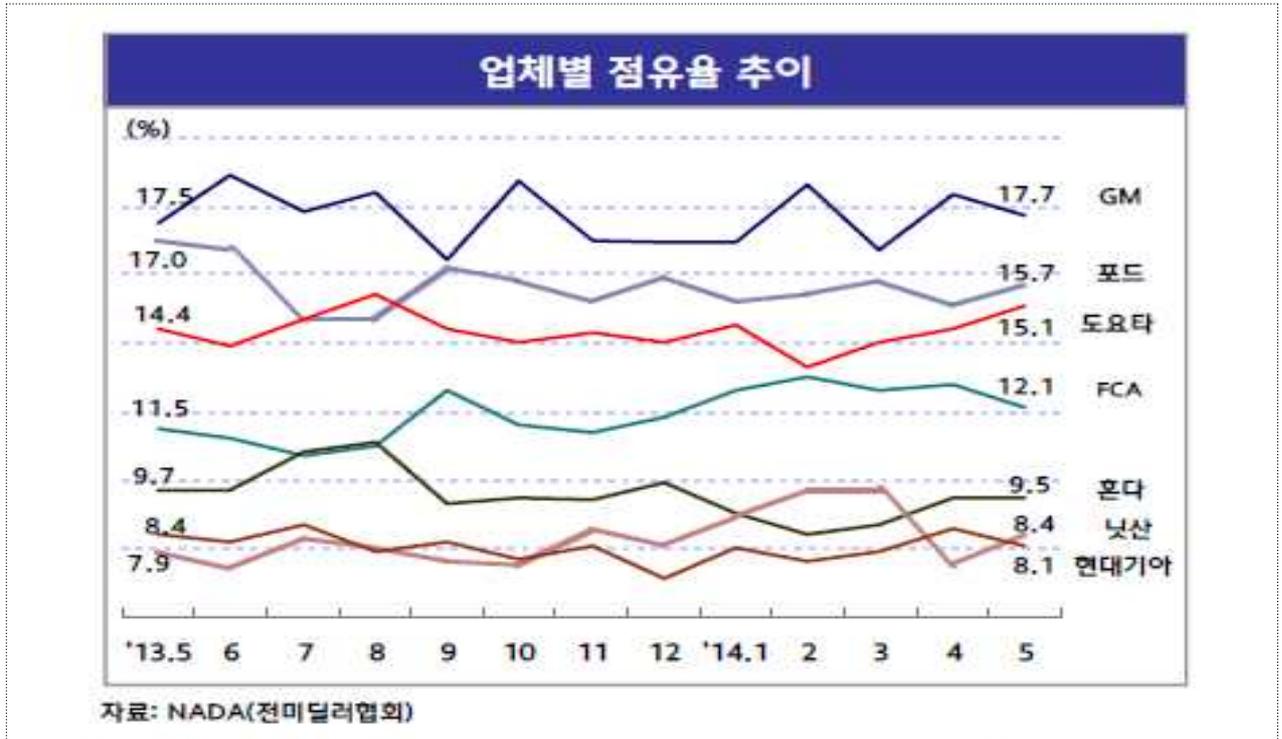
② **(일본) 닛산은 현대·기아차를 제치고 6위로 순위 1단계 상승(19% ↑)**. 도요타는 호조 지속(17.0% ↑), 혼다는 증가세(9% ↑)를 회복하는 등 전반적인 약진세 시현

- **닛산** : 주요 모델인 로그(18,722대, 전년비 8% ↑), 센트라(21,932대, 전년비 75% ↑), 알티마(36,053대, 전년비 13% ↑)가 신차 및 현지생산 효과로 최다 월간 판매를 달성하면서 판매순위 향상에 기여
- **혼다** : 인센티브 증가에 따른 소매판매 호조로 주력 모델인 시빅(36,089대, 전년비 19% ↑)과 어코드(39,637대, 전년비 19% ↑)의 판매가 크게 증가
- **도요타** : 신차 효과 및 인센티브 증가의 영향에 계속되어 코롤라/매트릭스(36,611대, 전년비 31% ↑), 캠리(49,584대, 전년비 26% ↑), 렉서스(26,921대, 전년비 21% ↑)등의 판매 증가

③ **(현대·기아차) 130,994대로 전년비 8.5% ↑ 상승(전월 119,783대비 9.4% ↑)** 하였으나, 점유율\*(8.1%) 순위는 지난달보다 한 단계 하락한 7위

- \* 5월 점유율 : 4월 대비 0.5%p 하락, 전년동월(8.3%)대비 0.2%p 하락
- \* 6위인 닛산과는 점유율 0.3%p 차이 (4,940대)
- **(현대차) 70,907대로 전년비 3.7% ↑ 상승, 전월(66,107대)비 7.3% ↑ 증가하였으나**, 주력 모델인 소나타의 증가세가 미미하고, 엘란트라(21,867대)의 경우 판매량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 \* 산타페(10,638대, 전년비 50% ↑)와 엑센트(6,117대, 전년비 10% ↑)는 5달 연속으로 판매 성장. 제네시스(3,437대, 전년비 24% ↑)는 증가세로 전환
  - \* 소나타의 증가세(20,404대, 전년비 1% ↑)는 미미한 수준이며, 엘란트라(21,867대, 전년비 13% ↓)는 하락세 지속
- **(기아차) 60,087대로 전년비 15% 상승, 전월(53,676대)비 11.9% ↑ 증가**. 소울, 옵티마 등 주력 차종의 판매가 호조세 시현
  - \* 소울(15,606대, 전년비 37% ↑)은 전월에 이어 크게 두 자릿수 판매량 상승
  - \* 옵티마(16,843대, 전년비 10% ↑)는 판매량 증가세로 전환

< 업체별 점유율 추이 >



< 2014.5월 주요 업체별 판매량 (대, %) >

회 사	'14.5월		'14.4월		'13.5월		판매량 증가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판매량	점유율	전월	전년동월
① GM	284,694	17.7%	254,076	18.3%	252,894	17.5%	12.1%	12.6%
② Ford	253,346	15.7%	210,355	15.1%	246,019	17.0%	20.4%	3.0%
③ Toyota	243,236	15.1%	199,660	14.4%	207,952	14.4%	21.8%	17.0%
④ Chrysler	194,421	12.1%	178,652	12.8%	166,596	11.5%	8.8%	16.7%
⑤ Honda	152,603	9.5%	132,456	9.5%	140,013	9.7%	15.2%	9.0%
⑥ Nissan	135,934	8.4%	103,934	7.5%	114,457	7.9%	30.8%	18.8%
⑦ 현대기아	130,994	8.1%	119,783	8.6%	120,685	8.3%	9.4%	8.5%
⑧ VW	53,665	3.3%	50,824	3.7%	55,415	3.8%	5.6%	△3.2%
⑨ BMW	35,406	2.2%	29,667	2.1%	31,245	2.2%	19.3%	13.3%
⑩ Daimler AG	29,570	1.8%	29,329	2.1%	27,361	1.9%	0.8%	8.1%

※ 내용 관련 문의: 최성준 상무관보 (202-939-5670, s505agnie@gmail.com)

# 미 연방의 ICT 관련 주요정책과 PIFs(The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그리고 SmartAmerica Challenge

## 1 ICT 관련 미연방 정부 Initiatives

### □ Wireless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Initiative(2011.2.10.)

- 산업촉진, 교육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하여 4G 서비스를 5년 이내에 전 국민의 98%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 모바일 브로드밴드 2배 확충, 전 국민의 98%에 4G 서비스 제공, 무선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에 \$30억 투자, 사회안전망의 전 국토 확장과 상호연동 등을 목표

### □ 빅데이터 R&D Initiative(2013.3.29.)

-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도구 등의 개발을 위해 \$2억불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 발표
- OSTP, NSF, NIH, DoD, DoE, US Geological Survey 6개 부처 참여
  - ※ OSTP(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oD(Department of Defense), DoE(Department of Energy)

### □ The ConnectED Initiative(2013.6.6.)

- 5년 이내 전국에 디지털 러닝을 보급을 목표
  - 각 학교에 광대역 인터넷 및 차세대 무선 인터넷 보급, 디지털 러닝 단말 보급, 디지털 러닝을 위한 선생님 교육, 디지털 러닝 교육 자료 확충 등

## 2 PIFs (The Presidential Innovation Fellows)

- (목적) 정부 주요 과제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목적으로 운영
  - OSTP(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와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이 공동으로 운영
  - 프로젝트는 인명보호,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의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

< PIFs 프로그램 >22

구분	프로그램
1기 (‘12년, 5개)	Open Data Initiative, Blue Button for America, RFP-EZ, The 20% Initiative, MyGov
2기 (‘13년, 11개)	MyUSA, BusinessUSA, RFP-EZ and Innovative Contracting Tools, <b>Cyber-Physical Systems</b> , Open Data Initiatives, MyData Initiatives, Innovation Toolkit, 21 <sup>st</sup> Century Financial Systems, Disaster Response & Recovery, Development Innovation Ventures, VA Modernization Team
3기 (‘14년, 3개)	Making Digital the Default: Building a 21 <sup>st</sup> Century Veterans Experience, Data Innovation,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Crowdsourcing to Improve Government

※ 현재 3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신청을 접수 받고 있는 중(~1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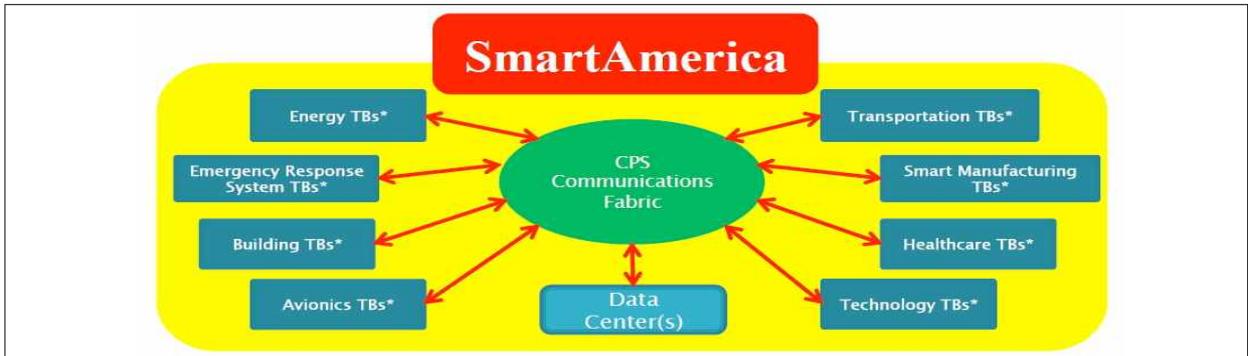
- (운영예산) PIFs 프로젝트 선정후 공고를 통해 각 프로젝트별로 민간전문가들의 지원 및 선발이 진행되고, 선발후 각 부처의 담당 고위 공무원과 함께 진행
  - 각 프로젝트 예산은 부처나 기관의 기존 예산으로 수행되며 별도의 추가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 단, 선발된 민간전문가에게는 GSA에서 채용하여 공무원 수준의 임금 (\$10~12만) 및 처우 제공
    - ※ 최소 근무기간은 6~13개월이며, 최초 몇 주는 반드시 워싱턴 D.C. 에 근무하고 각 프로젝트별로 근무방법을 정하여 운영

### 3 SmartAmerica Challenge

- (비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의 상호 연결이 갖는 장점을 보여 주는 것
  - 사이버 물리시스템의 많은 연구가 각 분야별로 한정되어 있어 실생활의 변화나 잠재적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함.
- (추진방향) 분야별로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물리 시스템 테스트베드와 데이터 센터를 연계하는 통합된 “CPS 프레임워크”를 구축
- (핵심응용분야) 핵심 응용분야로서 일곱 가지를 제시
  - ※ 7개 분야 : 생산 공정 , 교통 , 전력 , 헬스케어, 홈/빌딩, 국방, 재해대응

- (프로세스) 1차로 각 분야의 테스트베드를 연결하는 3~5개 정도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2차로 상호연동된 사이버-물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계 되는 혜택을 살펴보는 작업 시행
  - ※ 측정 방법 :의료의 질, 고용 창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제시
- (추진일정) 개발 및 시행 과정('13년 12월~'14년 3월), 테스트, 입증 및 분석 과정('14년 3~4월), SmartAmerica Summit 개최('14년 6월)

< CPS Framework >



※ Framework : High confidence network(CPSnet), security, communication stack(open standard protocols), data architecture(open, easy-to-use application protocol and semantic structure)

## 4 Initiative-PIFs 간 관계

- PIFs의 목표는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단기간 문제 해결과 가시적 결과 창출
  - **Initiative**는 국가 중요 부문별 중장기 계획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SmartAmerica Challenge(SAC)**
  - IT분야 연구, 각 분야별로 추진되던 프로젝트, 테스트베드 등의 결합을 통해 신규 창출 가능한 서비스(기술) 무엇인지 보여주고
  - 미국 경제나 개인의 삶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추진

⇒ 결국, 향후 미국 정부가 경제 혁신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ICT 정책 발굴 및 타당성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내용 관련 문의 : 정성환 방통관 (202-939-6478, [xyz3812@gmail.com](mailto:xyz3812@gmail.com))

## 미국등일일경제지표(14.6.13금)

**DOW(0.65% 하락) KOSPI(1.03% 하락) 달러 환율(0.01% 상승)**

재경관실

**[주가]**

	'12말	'13말	'14.2말	4말	5말	06.11	06.12	06.1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 4	16,576.6 6	16,321.7 1	16,535.3 7	16,698.7 4	16,945.9 2	16,843.8 8	16,734.1 9	-0.65%	0.21%	0.95%
Nasdaq	3,019.51	4,176.59	4,308.12	4,103.54	4,247.95	4,338.00	4,331.93	4,297.63	-0.79%	1.17%	2.90%
S&P 500	1,426.19	1,848.36	1,859.45	1,878.33	1,920.03	1,950.79	1,943.89	1,930.11	-0.71%	0.52%	4.42%
KOSPI (환)	1,997.05	2,011.34	1,979.99	1,961.79	1,994.96	2,014.67	2,011.65	1,990.85	-1.03%	-0.21%	-1.02%
NIKKEI (일)	10,688.11	16,291.31	14,652.23	14,304.11	14,632.38	15,069.48	14,973.53	15,097.8 4	0.83%	-3.18%	-7.33%
FTSE100 (영)	5,897.80	6,749.09	6,809.70	6,769.91	6,871.29	6,873.55	6,838.87	6,843.11	0.06%	0.41%	1.39%
DAX (독)	7,612.39	9,552.16	9,692.08	9,584.12	9,938.90	10,028.8 0	9,949.81	9,938.70	-0.11%	0.00%	4.05%

**[금리]**

(단위: %)

	‘12말	‘13말	‘14.2말	4말	5말	06.11	06.12	06.1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T/NOTE (3월)	0.05	0.07	0.04	0.02	0.04	0.04	0.04	0.04	0.00	0.00	-0.03
T/NOTE (10년)	1.78	2.99	2.65	2.71	2.45	2.64	2.65	2.58	-0.07	0.13	-0.41
T/NOTE (30년)	2.95	3.90	3.60	3.49	3.31	3.47	3.47	3.41	-0.06	0.10	-0.49
LIBOR (Dollar,3월)	0.31	0.25	0.24	0.23	0.23	0.23	0.23	0.23	0.00	0.00	-0.02

**[환율]**

	‘12말	‘13말	‘14.2말	4말	5말	06.11	06.12	06.1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055.40	1,067.50	1,033.20	1,020.10	1,015.70	1,017.70	1,017.80	0.01%	-0.23%	-3.56%
Y / US\$	86.46	105.30	101.72	102.38	101.62	102.30	102.04	101.97	-0.07%	0.34%	-3.16%
US\$/EUR	1.3240	1.3736	1.3698	1.3800	1.3603	1.3545	1.3537	1.3559	0.16%	-0.32%	-1.29%
CNY / US\$	6.2304	6.0628	6.1620	6.2659	6.2431	6.2277	6.2220	6.2030	-0.31%	-0.64%	2.31%

**[유가]**

	‘12말	‘13말	‘14.2말	4말	5말	06.11	06.12	06.13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107.88	102.40	101.28	103.58	104.35	104.40	106.53	2.04%	2.85%	-1.25%
Dubai (\$/배럴)	107.81	108.77	105.55	104.78	106.33	105.16	105.37	106.96	1.51%	0.59%	-1.66%

\* 최종종가 기준 작성